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변교회의 어린이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저희들을 통하여 간단한 한국말을 배우는 것을 매우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제 아내를 통하여 한국 동요와 함께 간단한 율동을 배우는 것을 너무도 즐거워 합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운 것들로 저희들에게 간단한 한국말 인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 밖으로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과 한국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저희들이 일으킨 바람은 아닌 것 같고, 말로만 들어 왔던 '한류 (韓流)'의 영향이 저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단연 인기를 끄는 것은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이곳 표준말로 녹음하여 방영 하는데, 제법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몇 안되는 해변 마을 이지만, 등장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토요성경학교에 출석하는 한 여자 아이는 아주 귀하게 비닐로 포장한 사진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잘생긴 남자 배우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보자고 해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진과 함께

해변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친자매가 갑작스럽게 돌아 가셔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례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 참여한 모든 이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처음 뵈는 고인의 어머니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침통한 얼굴이 한순간에 활짝 핀 얼굴로 변하더니, 엉뚱하게도 저희에게 한국말로 '사랑해요.'라고 먼저 인사를 하십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매우 어색하게 갑자기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고인의 어머니는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잘생긴) 한국인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게 되니, 그동안 공부했던 한국말이 상황에 맞지 않게 절로 튀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류의 영향이 모든 상황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마띠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2중으로 되어 있는 철문 중에서 첫번째 문을 무기를 소지한 교도관들과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통과 합니다. 준비해 가지고 간 물품들을 남성 재소자들에게 직접 전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별도의 교도관이 무기를 들고 남성 수감자들이 있는 격실의 지붕 위를 따라 저희들의 이동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따라 다닙니다. 물론 수감자들이 머물고 있는 격실에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긴장 가운데 남자들이 머무는 교도소에서 준비한 물건을 나누고, 여성 수감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면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여성 수감자들이 머물고 있는 격실 안에까지 들어 갈 수 있게 해주어서, 제 아내는 격실 안에 들어가서 여성 수감자들과 함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잘 안되네요."

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간 옷과 신발등을 같이 고르기도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들이 교도소에 갖혀 있으므로해서 가장 답답해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즐겨 보았던 한국 드라마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한류의 영향이 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이멜다'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 분이 얼마나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학교라고 말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학생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도서관은 커녕 학생들에게 교과서도 제대로 공급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35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게할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교육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 중의 하나가 **모두들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어'와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정말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첫번째 고등학교가 될 것이고, 학생과 부모들에게 작지만 매우 특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도 뒤늦게 이곳 현지어를 어렵게 배워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들이 열망하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한국말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주 중에 마띠 학교를 자주 방문 할 수 있는 형편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한류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석진 곳에 다양한 영역으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도 이곳에 불기 시작한 한류를 훨씬 뛰어 넘어, 이들의 삶 속 깊숙히 속히 휘몰아 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행 2:2,3)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새롭게 구입하는 중에 가장 먼저 장만한 것 중의 하나가 ‘텔레비전’입니다. 현지어를 빨리 습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입을 하였지만, 정작 현지어 방송은 제한된 시간에 아주 미미하게 방송이 되고 대부분 표준어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현지 지방 언어 습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몇 안되는 텔레비전 공중파 채널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채널들이 다름아닌 ‘종교’ 관련 방송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 카톨릭 종교 방송이 거의 대부분 이지만, 그 외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전 세계를 향하여 포교를 하고 있는 막강한 세력의 이단 방송도 매일 시청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제법 큰 슈퍼마켓 형태의 현대식 시장이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류나 생선을 사려면, 저희 집에서 가까운 재래식 시장이 훨씬 더 가격이 싸고 방문 하기가 용이 하지만,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식 슈퍼마켓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마켓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낮 12시를 비롯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내 방송을 통하여 모든 시장 거래를 정지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종업원은 물론이고, 시장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고객들 까지도 모두 함께 전통 카톨릭 방식에 따라 기도를 하게 합니다. 계산을 하던 종업원이 동작을 멈추고 엄숙하게 방송에 집중을 하고, 장을 보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제 자리에 멈추어 서서 종소리와 함께 기도문을 듣습니다.

얼마전 이곳 근방에 있는 다른 섬을 방문하기 위하여 여객선에 승선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도 출발하기 전에 전통 카톨릭 방식에 따라 전 승객들에게 기도문을 방송하며 안전 운행을 위하여 같이 기도 하도록 합니다.

이곳의 주 이동 수단인 택시, 지프니, 트라이시클등을 타 보면, 각각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이들의 깊은 신앙심들을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차안에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가 메달려 있는 것은 기본이고, 조그마한 각종 조각상들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이들이 믿는 종교와 관련있는 장소를 지날 때마다 잊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기도 표시를 합니다. 이 근방에서 쉽게 눈에 띄는 이슬람권 지역은 더욱 더 확연하게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얼마나 특심 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입고있는 옷 모양부터, 거주지의 모양, 사용하고 있는 색깔의 배합등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종교가 생활화 되어 있고,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행 17:22,23)

그런데 이곳의 기독교는 선교 역사가 한국보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연약하게 보입니다. 제법 큰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회자들 까지도 연약해 보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제가 알게된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는 주중에 다른 일을 해가며 어렵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물을 배달하는 분, 경비를 담당하는 분, 트라이시클을 운전하는 분, 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 그리고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교회 일에만 전념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질책은 이들의 생활고를 알면 알수록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내에서 헌금을 하는 교인이 목회자 자신 밖에 없을 정도이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마띠 교회와 사택

그동안 마띠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부임한지 2년이 못되어서 도심지 교회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어서 저희도 놀랐지만, 교인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마띠 교회가 목사님의 여섯 식구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입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목사님 내외도 나름대로 부업을 하며 보충을 해 왔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한 마띠 교회 교인들은 사례비가 적어도 목회할 수 있는 식구가 적은 교역자를 보내 달라는 소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교가 범람하고 있는 이곳에서 어렵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 너무도 안스럽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선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곳에 있는 기존의 연약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품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머니형 선교’도 꼭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 1:23)**

8

기도 요청

1. 마띠 고등학교에 New Spirit 장학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2. 교실 벽 공사가 시급합니다. 8개의 교실 벽, 창, 문등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3. 학교 내에 성경을 같이 공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플 (Chapel)을 건축하도록
4. 마띠 교도소의 150여명 수감자들의 청결을 위한 생필품 (비누, 치약, 세제등)을 계속 공급 할 수 있도록
5. 마띠 지역 사역을 위한 이동 중의 안전과 차량 구입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